東亞日報
十八日夕刊
今日八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다시 빼스賣却說에 對하야

一

一時 流布되든 京城 빼스는 마침내 具體的으로 賣却되는 모양이다. 新年度 豫算에 ……

二

(一) 現在 府營빼스는 비록 路線이 短小하나 ……

三

……

四

要컨대 京城府營빼스의 賣却은 무슨 點으로 보나 不必要한 것이다. ……

今秋理事會及總會를 日本은 全的으로 否認

滿洲國獨立을 否認하면 脫退도 不辭할 決意

【東京十七日發電通】 日本의 滿洲國承認에 對하야서는 米國을 비롯하야 各國은 沈默하고 있는데 今秋의 理事會及總會는 리톤 調査委員 報告의 審議를 中心으로 依然 滿洲國의 運命과 日本의 前途에 對하야 ……

日中紛爭對策으로 共同動作約束次?

太平洋問題精通者 米上院議員

리트氏十六日渡佛

戰艦繫留設備를 布哇眞珠灣에 增設

日米間의 緊張을 傳하는 此際

百卄五萬弗豫算으로

民國의 通牒

米國에 送達

顔惠慶壽府에

在滿米領事 當分現狀維持

非公式交涉機關으로

極東聯盟力說

滿洲國代表 鮑觀澄氏談

滿洲國最初 領事赴任

【新京十七日發電通】 滿洲國政府 最初의 領事로 ……

九、一八記念日과 國民政府의 發令

半旗揭揚、日貨도 不休

滿洲事變 一週年에 際하야

齋藤總理談

北平市民大會

張學良警戒

滿洲卄五日부터 民國商品에 課稅

되렘마에 陷한 窮境의 民國

日本商品에는 有利

總代表卄四日出發

十一月六日 獨逸總選擧

劉珍年軍優勢 新河서 激戰

原因不明하나 事態惡化形勢

◇……韓劉兩軍의 衝突

絶食示威에 恐懼 싼디氏를 卄日釋放?

各團體의 絶食示威延期에 對한 싼디氏의 悲壯한 決意

南京政府의 巨頭들 杭州에

第二杭州會議實現?

헨더손議長 壽府에

不可侵條約 日本에 提議?

◇滿洲國承認條件으로◇

注目되는 赤露態度

武藤大將奉天에

橫說堅說

高等普通學科講義
秋期新入生大募集
普通學校五六學年講義
朝鮮高等普通學會

京城秋季競馬大會
九月二十三日(祭) 九月二十四日(土) 九月二十五日(日) 九月三十日(金) 十月一日(土) 十月二日(日)
每日午前拾時開始
勝馬五頭迄 單勝式 投票六頭以上 複勝式 併用施行
於東大門外競馬場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天浩堂醫院 醫師 李基浩

肥滿劑

東亞日報 京城販賣部

男女實習生募集

紙品美術工場

誠濟內科醫院

天野テント商會

新案特許最新發明
綿打機 空氣銃 稻扱機 製䌫機

三從姪治九王大人(萬正大人)承旨 公以老患今月初二日丑時別世將以今月十八日襄奉于晉州郡晋城面東谷山先塋當日中時下棺玆專告啓
護喪 許萬寔 上

本社主催 第十回女子庭球 相對陣營確定

벽두부터 긴장할 추첨의 결과

戰機已熟한大會氣分

본사주최의 제十회 전조선녀자정구대회(全朝鮮女子庭球大會)는 래二十三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될터인바 작十七일 오후四시 본사회의실에서 각 참가학교 정구부책임자참석밑에 신중히 행한바 그결과는 별표와갓다。제一회전부터 작년의 우승교평양고녀는 경성의 우승후보녀자상업과 대전케되엇스며 자타가엄지손을 꼽는 우승후보진명녀고는 제二고녀와 대치되어 벽두부터 대회의 전운은 노픈하늘 허공에 노는공과가티 고조되어 잇슬것이 예상되고도 남는다

◇寫眞은昨十七日午後三時抽籤會場의光景―本社會議室에서―

第一回戰

進明女高—第二高女 東코―트(前九、三〇―一〇、五〇)

女子商業—平壤高女 西코―트(前九、三〇―一〇、五〇)

第二回戰

京城女高—淑明女高 東코―트(前一一、〇〇―後〇、二〇)

梨花女高—好壽敦女高 西코―트(前一一、〇〇―後〇、二〇)

第一高女—女商、平高女 一回戰의勝者 東코―트(後〇、三〇―後一、五〇)

二高女、進明—載寧明新 一回戰의勝者 西코―트(後〇、三〇―後一、五〇)

◇備考 第三回戰부터는 第二回戰終了後 運動協에서 抽籤함 時間은 準決勝까지 東西兩코―트로 分하야 午後二時부터 開戰할 豫定이며 決勝은 西코―트에서 午後四時에 開戰할豫定。

懸賞 今年優勝은어듸로? 豫想投票規程은別紙附錄에

滿洲事變一週年 各署特別警戒

일요일임도 불구하고 ◇中國人一名檢擧

금十八일이 만주사변 一주년 긔념일인 관계로 시내각경찰에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고하고 총출근을하고 특별경계를 하는중이라한다 부내 서소문정(西小門町)중국인들의 가옥을 수색하야 주의 배일분자가 잇는지의 압수후 중국인청년 一명을검거하야 목하서대문서에 류치식히고 방금엄중취조중이나 아즉자세한것을알수업다고한다

外金剛驛開業

금강산(金剛山)탐승의 씨슨이되는 이째에 외금강역(外金剛驛)은 드되어 지난十六일부터 영업을개시하야 아프로 탐승구경가는사람의 만흔편의를 주리라고한다

群山에虎疫豫防

【군산】 각지에서 호열자가만연됨으로 군산에잇서서도 오는二十일부터 빈정(濱町)에서 시작하야 예방주사를행한다고한다

通川에도

【통천】 통천경찰서에서는 각처에 호렬자가만연됨을보고 동해선 철도가통과와에따라 교통이 빈번함으로써 다음와가티 예방주사를 실시한다고한다

一、歙谷面長通里 九月十九日

一、順嶺面庫底里 九月廿二、三日

一、通川邑 九月廿五、六兩日

全朝鮮籠球選手權 延專과協實이獲得

역전석패한숭전과배재량군 ◇大盛況裡에終了

주앙긔독교청년회(中央基督敎靑年會)주최 본사후원의 제八회 전조선중등학교 전문학교(제四회)롱구선수권대회는 十七일오후 二시三十분부터 대회제四일의 결승전을 종로청년회관후정에서 행한바 중학부에는 협성실업(協成實業)이 전문부는 연희전문(延專)이 각각 우승하야 대회회장 김창제(金昶濟)씨로부터 본사와 중등학교의 우승기와 및 재미국총령사배와 전문학교에 우승배를 수여하고 폐회되엇다 이날의관중은 본대회의 처음보는 립추의여지업는 대성황을 일우엇다 지금까지 우승교를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中學部

第一回 善隣商業學校

第二回 徽新學校

第三回 京城第一高普校

第四回 京城師範學校

第五回 徽新學校

第六回 平壤崇實中學校

第七回 京城第二高普校

第八回 協成實業學校

◇專門部

第一回 普成專門學校

第二回 延禧專門學校

第三回 普成專門學校

第四回 延禧專門學校

中學決勝 協實36 培材32

前半培材의勝越! 前22—10 後26—10

十七日午後二時二十分 開始 審判(主)金振秀(副)金化泳兩氏

【前半】 培材軍은LF李의劈初의쏘올을 비롯하야 포―드의 活躍은 實로 豫想을뒤집어中距離의 投射는 連續的으로 功을奏하야 强豪協實의 牙城을內迫하얏다 이날協實軍은 前半에 잇서서 多少鬪志에 氣를失한 늣김이잇서보이어 스코어는 廿二對十으로 斷然培材軍優勝을 보이고마치다

【後半】 協實軍은 前半의失點을 挽回하기에 全力을集中하야 中堅陣과 LF金의 活躍에 同點으로 接近한後 氣勢를다시 올리어 非常한 白熱戰의 쏘에 쏘을 二個의差로 培材軍惜敗하니 協實軍本大會最初의 榮冠을 獲得하얏다

崇專		反	前	後
金永吉	F	2	6	2
朴永甫	F	0	4	8
金成奉	C	2	4	0
鄭淳[illegible]	G	1	2	4
[illegible]浩	G	2	2	0
		7	18	14

延專		前	後	反
孫[illegible]俊	F	8	4	0
吳鉉[illegible]	F	4	2	2
黃大傑	C	2	2	2
郭[illegible]斌	G	9	2	3
李生求	G	0	3	0
李貞傑	G	0	0	0
		14	23	7

培材		反	前	後
金[illegible]元	F	2	12	2
李容馥	F	0	4	4
廉[illegible]鉉	F	1	0	0
朱在九	C	0	0	0
洪淳恪	G	1	4	4
張完致	G	0	2	0
		4	22	10

協實		前	後	反
朴[illegible]洙	F	0	4	1
金應鎬	F	4	8	0
閔元植	F	0	11	1
宋熙道	G	2	0	1
曹[illegible]煥	G	4	0	2
[illegible]相洙	G	0	3	3
		10	26	8

◇籠球에優勝한兩雄 (上)協成實業校 (下)延禧專門校

專門決勝 延專37 崇專32

崇專의力戰苦鬪 前14—18 後23—14

十七日午後三時四十五分開始 審判(主)張權(副)田炳鎭兩氏 【前半】 兩雄의對峙라 자못 人氣를集中하얏다 延專中堅 黃의 쏘올로 싸스켓은 開始되엇다 崇專의技도 또한伯仲하야 一進一退로 五分에四對四同點이 되더니 延專의 포―드번갈아가며 쏘올을加하야 十對四로 리―드하자 崇專의逆襲은 堂堂十二點으로만들어 稀有의 씨―소께임을演하더니 그後로 繼續하야 R 金의二쏘올은 完全히 十八對十四로 前半을 勝越케하얏다 【後半】 羅兄弟의 兩軍은 二十四對二十四、二十六對二十六、二十八對二十八의 三次나同點을 觀覽하더니 三十二對三十二의 一點差로 最後一分을 압두고 觀衆의 가슴을 조리더니 延專의 LF吳의 필드쏘올二個는 快히勝因을지어 三十七對三十二로 遠來의 崇專軍惜敗하고 明年을期約하얏다

三個月餘에亘해不熄 前後三百餘名檢擧

어민조합에까지검거선풍 尙今六十餘名取調

【강릉】 지난六월四일 오전세시정부터 강원도 양양(襄陽)경찰서에서는 도경찰부 지휘로 린군경찰서원 七十여명의 응원을어더 돌연 당지농민조합(農民組合)을 중심으로 일대검거선풍이 이러나 一시一백八十여명까지 검거한사건은 三개월여에 이르기까지 검거의범위는의연히 날이갈스록 확대되어 당지청년동맹을 비롯하야 어민조합(漁民組合) 로동조합에까지 미치여 총검거의인원수가 전후 三백여명에 달한다하며 현재취조를 밧고잇는사람이 六十四명이라한다 강릉지청 검사까지 출동하야 각단체와 관련하야 엄숙한 검거는 사건이엉크러지어 취조하기에도 갈래를잡기가 곤난한 형편이며 이때문에 류치장은만원이고 연무장과 숙직실까지 수용하고잇다한다

夜學生檄文이端緖 十四個看板撤去

면사무소게시판에 격문부처 各社會團體를閉鎖

탐문한바에 의하면 금년一월경에 동군강현면장산리(降峴面長山里) 농민야학생 모가 동면사무소압 게시판에 불온한격문을 첨부함을 단서로하고 야학교사와 학생六명을 검거취조한결과 배후에잇서 농민조합에서 주의선전과 불온사상을 고취시키엇다는것이라 한다

그러고 경찰에서는 한걸음나아가 각사회단체간판을 폐쇄하는일방 농민조합본부를 비롯하야 동十四개지부의 간판까지 떼어버렷다한다 이것으로보아 각단체를 해산시키는동시에 탄압적수단에서 나온것이라고 관측된다한다

十月上旬頃 送局될듯!

취조의손이 모자라서 檢事까지出動取調

방금 류치한 사람중에서간신히 六十여명에게만 엄중한취조를하는중이며 아즉 경찰서에서는 그이상손이 미치지못해서 취조를간신히하는중에잇다고한다

경성지방법원 강릉지청 검사국에서 검사가 출동하야 경찰과 협력해서 취조중인데 아프로는 취조의 진행이 빠르겟스나 느저도 十월상순에는 취조가씃이나서 검사국에 송치할모양이라고한다

工部局警察暴行에 各方面非難沸騰

재류동포는 물론、각국인분긔 새스會社側도反省?

【상해특신】 상해공무국 경찰이 조선사람 새스가[illegible]에게폭행한사건에대하야 문명을 자랑하는 영국경찰로서 인권을유린하엿다는것은 각방면에서 모다비난하고잇다 특히 얼마되지아니하는 인원이 출동하야 사정도 조사하지아니하고 돌연히 곤봉을휘둘으며 잔학하게한것은 언어도단의 일이라한다 이새라에 재호동포의 격분은 물론이오 一반 외국인들까지도 비난을 부르짓고 잇슴으로 새스회사에서도 자기들의한행동을반성할모양이라한다

◇藥局妻自殺

부내원정(元町)二정목八十八번지 림(林)약국 림태랑(林太郞)의처 『사가에』는 지난十七일오후十一시에 자긔집에서 다량의극약을마시고 十八일아침八시에 드듸어 사망하얏는데 원인은 자긔의남편이 몹시방탕해서 늘 만흔금전을 소비할뿐아니라 자긔에게 너무랭대함으로 세상을비관하고 자살한것이라고한다

『輿論時代』發刊

월간평론잡지 여론시대(輿論時代)를 발간하려라는데 창간호는 방금 인쇄중으로 느저도 금월하순에는 발매하리라하며 정가는 二十전이며 각지에 지분국을널리모집한다는바 자세한것은 부내광화문통(光化門通)二一〇번지 광화문삘딩내 동사로 문의함이 조켓다고한다

梁山農組事件 公判延期 九月卅七日로

【부산】 경남 량산농조(梁山農組)사건一회 공판이 지난十五일로 결정되엇든바 당일돌연히 공판을 二十七일로 연긔해다고한다

日本軍戰死者

【哈爾賓十七日發聯合】 통하(通河)부근의격전으로 영전(永田)대부대 궁기준웅(宮崎俊雄)조장 정본정일랑(井本貞一郎)、군조 전전일조(前田一助)、상등병 청목[illegible]위(靑木[illegible]衛)외一명이전사하얏다고한다

奉天襲擊計劃前 敗殘兵包圍擊退

【奉天十八日發電通】 十八일을 긔해서 봉천(奉天)습격을 계획중에 잇는 마부대의 반란군이이동중에잇는것을 탐지한 일본군 신정(新井)토벌대는 十六일 새벽 유가둔(劉家屯奉天西三[illegible]키로)부근에서 동북항일구국군(東北抗日救國軍)四려장 록림호(綠林好)구국군독립제二려장 인의호(仁義好)가 인솔한 五백명이 조직하야 봉의에 포위해서공격한바 반란군은 교전三十분후 독립제二려 제一련장 오해봉(吳海峯)이하六十五개의 사체와 다수부상자 또는 만흔무긔등을 유긔하고 사방으로흐터젓다고한다

◇들窓盜賊

본적을황금정(黃金町)五정목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도라다니는 박삼남(朴三男)一名明鎭은 지난二월부터 단독으로 남의집을창만 엿보고 잘도질을하얏는바 그는 주인이잠든 틈을타서 들창문을 열고 막대기로 걸린옷을쎄여현금만훔치고 옷은감쪽가티 도로 거러두는것이라는바 범행은 전후十七건으로 금액은 二백여원이나되다고하며 그간 룡산서에서 취조를마치고 十七일검사국에송치되엇다고한다

滿洲承認當夜에 敗殘兵撫順襲擊

鐵道線路를爆破코

【奉天十六日發電通】 무순을습격한 잔병은 일주동지방을포위하듯이 진을치고 긔회를엿보든바 만주국을승인하는 十五일밤에 행동을 개시하얏다 그一대가 무순을 습격하는동시에 다른一대는 대궁둔(大宮屯)방면의 철도를파괴하고 전선을끈허 교통과통신이 두절되엇다 수리하려간 선로공부들에게긔관총을 발사함으로 일본수비대는 이것을 격퇴하얏다 그리고 란갱방면을 습격한二백여명은 일본수비대、헌병、경관、재향군인、공안대등의공격을바더 五十여의 사체와三명의포로를버리고 퇴각해다 일본군측은 七명의 사상자가잇섯다

◇同別報 【무순지국전보】 十五일오후十二시 대도회(大刀會)약二백명은 무순(撫順)탄광을 습격하야 三개소에 방화하고 또 동포三명피살(전문불명)명중상해다 부근의 농민동포는 속속시가로 피난중이라고한다

五時間激戰 戰死者도多數

【奉天十七日發聯合】 송화강(松花江)류역 통하(通河)경비의 일본[illegible]부대는 지방인민대표의청원에 의하야 부근을토벌하고 수해후의주민을 괴롭게하든패잔병을 전멸시키기 위하야 十六일미명을 긔해서 통하북방二十五리지점에잇는 패잔병의본부를 습격한바 약백명의 패잔병은 견고한토벽으로 완강히저항하고 다시남방으로부터 三백명의패잔병이 역습해와서 패잔병측의 맹격으로 얼굴이보히만한 갓가운거리에서 五시간이나 이르는 一대격전을 행하엿는데 토벽내가옥에 화재가이러나드듸어 패잔병은 사체四十二、부상자三十七을 유긔하고 도주하엿는데 일본군측에도 十六명의 사상자를 내엇다

百七萬圓事件 控判期日決定

동경공소원에서 열려 十一月二十日開廷

리현재(李賢在)씨며 제一은행사이의 一백七만원 청구소송사건의 공소공판은 오는十一월二十일 동경공소원(控訴院)에서 개정한다고 시내림정(林町)二五七번지 원고대리리종린(李鍾麟)씨에게 통지가왓다고한다 동사건은 부보한바와가티 지난번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그금의一부는 공금으로 또一부는 금이나 시효가지낫다고하야 원고에게패소판결을내렷든것인바 원고측에서는 그공소리유로써 천여공금이 아닐뿐아니라 또은행당좌예금에 대하야 무슨시효가잇느냐고 항고한것임으로 그공판의 전도는 더욱만흔주목을한다

平北의談合 十八名釋放

【신의주】 평북도토목청부업자들의 담합사건을 취조하는신의주검사국에서는 중야(中野)주임검사가 경성、평양에출장으로부터 귀임함을 지난十六일오후 돌연 평북도평의원 길전아일(吉田雅一)외 토목청부업자등 十八명의 신치구속을 풀엇다는바 사건은 일본인신치구속을하얏든 평북도 토목청부업자등 十八명은 더욱엄중취조중이라 한다

原地保護로 歸還시킬方策

만주의 약三만 피난동포 ◇救護方策을決定

북만각지에 피란하고잇는 약三만의 조선동포구제에 관하야 총독부에서는 결빙긔도 차츰박두하게됨으로 구제방법에 관하야 대체다음과가티 결정하얏다

一、收穫期를 아페두고 原地에植付한대로의 水田을 殘留하고 避難者에關하야는 軍又는 警察官保護에 될수잇는限 收穫케할

一、警察官의 손이 닷는 限保護를加하면서 原地에歸還케할

一、歸還키 不能한者는 될수잇는데로 收容保護

一、病者其他 더볼수업는者는 收容保護

月明夜漢江水에 薄命美人投身

얼굴 엡버 재취간것이 잘못 迷信結婚이나흔慘事

十六일저녁 한강철교에서 교교한월광아래 자살한 여자 절을 헤치고 투신한 묘령의녀성이잇섯다 그는부외공덕리(孔德里)二八번지의一호구창식(具昌植)의 처마천용(馬千容)(二[illegible])이란녀자이다 이제 그의눈물겨운 사정을들어보면 그녀자는 동리에서이름난미인으로 처녀시대에 그의부창식은 작년十一월에 마가관수에게 무려본결과 얼굴이념우미인이면 재취처로출가하야 모로시키라는말이잇서서 완고한부모는 작년十一월부터 구창식에게 출가를 시켯다한다 그가출가하기전에 전처의소생으로 어린애一명이 잇다든것이출가한후에본즉 一명의어린애가잇슬뿐더러 一명은반신불용인 김봉칠(金鳳七)이란소수인바 더구나 시부의학대가몹시심하야 살수가 업섯든것이라 다고한다 그런고 천용의현재 남편되는구창식이란자는 유명한 색마로현재 천용이는 그의 다섯재처로들어가하엿든바 전처는전부 가진학대를 다해서쫏차보내고 가진수단을 부리여 중매를노코 행세하야 가진 천용을 최근에이르러 버려버렷든것인데 천용은 결국동네에나던 그곳에도정고 여년에게 구함을바더 생명은건짐

少年運動操縱 金平遠의控判

사실시인、一심대로구형 判決言渡는來卅一日

【대구】 소년운동 선동의 혐의(少年運動煽動)김남해(金南海)군의로 제주지청에서 보안법위반죄명으로 징역一년 六개월의선고를밧고 대구복심에 공소한제주도 김평원(金平遠)군의 공소공판을 十六일에 개정하얏다 송하(松下)재판장담임、관아검사립회로 개정하야 사실심리에 잇서는 전연히시인하얏스며 검사로부터 一심동양의 구형이잇슨후 변호사손치은(孫致殷)씨의 변론이잇섯다 손변호사는 특히 이사건을위하야 자진하야 집행유예주장의 열변을 시하얏는데 판결언도는 오는三十一일이라 한다 (김남해군은 무사히 석방되어 도러갓다 한다)

李炳立氏釋放

개보 = 지난十五일새벽에 시내종로경찰서에 검속되엇든간도동흥중학교(間島東興中學校)교원이든 리병립(李炳立)씨는 작十七일에무사석방되엇다고한다

殺人强盜 二名逮捕

◇安城署에서

【안성】 지난八월 안성군양성면(安城郡陽城面)에서 우상남봉선(牛南鳳先)을 살해한범인 황삼봉(黃三奉)(二[illegible])은 지난十一일 그본적지인 광주군락생면금곡리(廣州郡樂生面金谷里)에서 안성경찰서원의손에 체포되고 그공범 음성군감곡면상봉리(陰城郡甘谷面上峰里) 리달용은 지난十三일 경성부림정(京城府林町)二三[illegible]번지량수동(梁壽童)의집에서 안성서원의손에 체포되어 살인강도의죄로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無政府結社事件 다섯달만에釋放

【례산】 충남온양(溫陽)경찰서에서는 금년四월二十八일에 례산읍 성진호(成晉鎬)의 검거를비롯하야 경성、평양、당진등지에서 아나키계청년 수十명을 검거하야 一백四十여일을 류치하여노코 서장이하 고등계직원들은 고심취조하엿스나 아모근거도 업섯던까닭으로 할수업시석방하고 성진호군만 보안법위반급 출판법위반(保安法違反及出版法違反)의 죄명을부치어지난十一일에 공주검사국에송치하고 경성자유련합사주간(自由[illegible]

그날그날

明日 九月十九日(月曜) 八月十九日(癸未)

日出前 六、二八 日入後 六、三六

【滿潮】 仁川 七、三五後 七、四五 / 鎭南浦 一〇、三〇 一〇、三〇 / 釜山 一、三五 一、五五

天氣豫報

高氣壓은 지금滿洲로부터 朝鮮에 퍼지고잇다 半島의氣壓은 緩慢하야 北東은澁하고 其他는 晴하다 그러고 元山은小雨가오는바 明日의 天氣는 良好하다

晴 一時曇

最高 二七、一度 最低 一四、一度

라디오

【十九日月曜】 午前六時四十分 體操▲十時氣象通報▲十時四十分料理獻立、日用品時勢、鮮魚部貫時勢▲十一時五十九分正午의時報時勢▲午後零時半尺八合奏▲一時十分文藝講座『歐洲文藝思潮』에對하야(一)金晉燮▲二時十五分家庭講座▲四時뉴―스、公示事項▲五時四十五分職業紹介事項、當夜프로그람發表▲六時뉴―스、公示事項、翌日프로그람發表▲六時二十五分英語講座▲七時半子供의時間▲八時浪花節▲八時半小唄▲八時五十分連續講談▲九時半時報▲氣象通報

ClibPDF - www.fastio.com

女子庭球大會 …은何校?

賞品

正解者多數인時는關係者立會下에 抽籤으로 一、二、三、四等을定하고左記와如히賞品을贈呈함

一等 金側腕時計 (一個) 一人
二等 太極星廣木 (二疋式) 二人
三等 本社特製메달 (一個式) 五人
四等 朝鮮日報購讀券 (一月分式) 廿人

出場校名

開城好壽敦女子高普校
平壤公立高等女學校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京城第一公立高女校
京城公立女子高普校
京城女子商業學校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載寧明新女學校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京城第二公立高女校

京城女高

고무신은 거북선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第一高女

도세리作曲 小夜樂
西班牙民謠 아이·아이·아이
(레코-드番號四〇三五七)

絶讚流行の唄 アリランの唄 放浪の唄
레코-드番號二七〇六六 長谷川一郎

京城府長谷川町
日本콜럼비아蓄音器株式會社京城支店

平壤高女

樂器と蓄音器 レコード

山口樂器店

京城本町

電話本局三三五三 振替京城五二一五

第二高女

正確한眼鏡의御用命은 大學堂으로

大學堂眼鏡店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局二三七五五•振替京城一一二九

本店 大阪市心齋橋筋一丁目

進明女高

書籍

株式會社 以文堂

普通學校各種參考書
中等學校各種參考書
思想·文藝·各種書籍
內外國新刊雜誌

京城府寬勳洞一三〇番地

諸般通信·光化門私書函二十六號
市內注文·電話光化門一四八四番
地方送金·振替京城一〇二七五番
電報通信·電略(이문)又는(イフ)

平壤高女

文學博士 小倉進平 校閱 船岡獻治 編著
鮮譯國語辭典 定價七圓 送料五十錢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特價八圓 送料五十錢

文學博士 高橋亨 監修 石塚藤太郎 著
朝鮮總督府中等敎育 漢文讀本自習書 一、二 各廿五錢 三 三十五錢 四、五 各五十錢

京城本町一丁目
大阪屋號書店
振替京城二五七三

女子商業

기침良藥

東京藥學士 金一泳 監製

祛痰止咳散 (거담지해산)

기침이로 고생하시는人士여 곳 祛痰止咳散을服用하십시요

해소

一週量(輕症)一円
三週量(重症)二円八十錢

京城太平通二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電本四三三一 振替京城一九〇七

創製三十餘年

이미여러만명이효험본

婦人良藥

京城女高

特製 胎養調經丸

婦人의健康은

經度의如何로左右합니다! 月經時下腹腰痛·月經不調의婦人은早期에고치지아느면 一生의큰病을이루나니, 미리미리胎養調經丸을!

本舖 和平堂藥房 京城鐘路

藥價 ¥5.00

淑明女高

改築落成 最新式의店舖 完備한大倉庫

大躍進의 高崎商店

(市內貫鐵洞優美館後) 電話光化門一五七八

貴金屬·時計·미싱機械·洋服·書籍·寫眞機其他高價貸附

梨花女高

太西館別莊

漢江鐵橋越便龍鳳亭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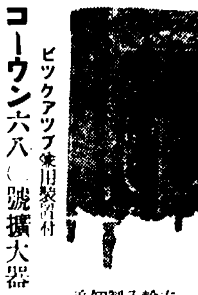
一、自動車賃 이從前來往二圓을一圓六十錢
一、沐浴料 從前二十錢을無料
一、寺刹式 (절간모양)으로每一人前六十錢均一에食事를社會奉仕的提供합니다

京城公平洞 太西館 電話光一一三四 一〇五六番

漢江鐵橋越便龍鳳亭跡 太西館別莊 電話龍山一三四一番

淑明女高

高級電氣蓄音器



家庭用ペントード擴大器

ピックアップ使用製品付 コーウン六八號擴大器
バルブ·ローラタイナミック モーター·ピックアップ其他一式附

嚴正定價 一金…圓也

コーウン最新式ラヂオ受信機製作修理販賣
朝鮮式電氣(다리미)總代理販賣
日電乾電池朝鮮總代理店
(コウン印)電球製造元
龍山硝子製造工場直營
空氣利用呼鈴發賣元

直輸入製卸直

登錄商標 コーウン 光云商會

京城蓬萊町一丁目一二八
電話本局三〇六五番
振替京城九二一四番
電略 コ(又ハ)ソ
取引銀行 漢城銀行南大門支店 東一銀行南大門支店

明新女校

모양잇고질긴

별표 고무신

단연코신어보시요
갑싼신상사켜레목 당함으로
결국 경제가됩니다

中央商工株式會社

第二高女

社團法人 朝鮮放送協會

京城府貞洞一

明新女校

京城府慶雲洞八八番地

弘濟少年軍本部

團長 金鍾善

好壽敦女高

腫氣에는

趙膏藥

藥價 五錢 十錢 二十錢

天一靈神丸으로

우리의腕力은!
우리의健康은!

藥價 家庭用·五十錢·一圓 懷中用·十錢·二十錢

ClibPDF - www.fastio.com

優勝의榮冠

第十回全朝鮮女

懸

懸賞規定

一、本頁廣告中에揭載한全朝鮮女子庭球大會出場校中어느學校가優勝하겠는가마쳐보시오

二、優勝하겟다고생각하는學校名과그欄內에잇는商店及商品名을記入하시오

解答規定

一、答案은官製葉書로一人一枚에限함(現住所氏名明記)

二、投票締切은九月二十二日까지限함(當日附消印이잇는것만有效)

三、宛名은京城府光化門通東亞日報社廣告部懸賞係

一、發表는九月二十八日本報紙上에揭載

梨花女高

京城鍾路二丁目

大昌洋靴店

電光七四四

振替京城一〇二五

平壤女高

시에론레코-드

電氣吹込 定價一円

秋夜長 즐거운밤에 드르라!

名曲 名唱

京城水標町 시에론商會京城出張所

好壽敦女高

小兒肝胃病特效良藥

영아환 嬰兒丸

腫仙膏 靈蘇丸

本舖 朝鮮商會 電光一七八五番

淑花女高

銀盤에活躍하는選手의美容도 白商會 것이라야滿足

白

咸興炭

梨花女高

朝鮮產中에特長이 第一만흔 咸興炭을 꼭 使用하십시요

溫突燃料로 無比한 咸興炭!

란로에나 沐浴湯所用으로 最上의 咸興炭!

他炭보다도 不思議하게 불이오래가는 咸興炭!

京城府南大門通日本生命ビル三階

咸興炭販賣株式會社

電話 {貯炭場本局 二四〇一番 / 事務所 三九九三番}

進明女高

高級毛絲 비-하이부

秋夜長 긴긴밤에

純毛絲비-하이부

慇懃한 빗갈에

폭은한 感觸

京城女高

새로 발명한

체증과속병엔

겡오-

효력절대

京城府西大門町二ノ八六

神聖堂藥品部

電話光化門三三三四

振替京城四九五〇

女子商業

世富蘭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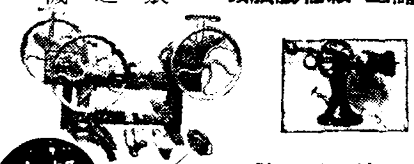
醫專病院附屬眼鏡部

檢眼 本校眼科教授擔任

廉價提供

金儲王 穀粒膨脹機

製麵機



好壽敦女高

專賣特許

(營業種目)

穀物膨脹機

長谷部製麵機

家庭用ウドンリバ機

最新式製油機

營業用製粉機

釀造用麵粉碎機

其他諸機械各種

京城府漢江通元町一丁目一七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二二四番

振替京城一八二四番

第二高女

秋의丁子屋

百貨充溢

九月三十日까지

秋季衣服次大廉賣

朝鮮初有의大童謠童曲集

淑明女高

尹石重童謠集

作		曲		
尹克榮	朴泰俊	鄭淳哲	玄濟明	洪蘭坡

挿		畵		序文
李象範	李承萬	金奎澤	全鳳濟	李光洙	朱耀翰

菊版百十頁

洋裝美本

著者寫眞入

奉仕定價八十錢

書留送料十六錢

特別附錄 海外童謠十二曲集

作曲 J.N. Elliott 外諸氏

選曲 鄭淳哲·金奎澤·外諸氏

發行及總販賣 新舊書林 京城府鐘路一丁目七五

電話本局六二一番·振替京城二八五二番

第一高女

キリンビール

기린삐-루

進明女高

清新한百貨充溢

三越

京城

京城女高

朝鮮料理界元老

明月館支店

京城瑞麟洞一三七

電話光化門一七二五 一七七八

明新女校

朝鮮料理界元老

明月館本店

京城府敦義洞一四五

電光六四·八六二·一五〇九

女子庭球大會 何校은?

賞品

正解者多數인時는關係者立會下에 抽籤으로 一、二、三、四等을定하고 左記와如히賞品을贈呈함

一等 金側腕時計 (一個) 一人
二等 大極星廣木 (一疋式) 二人
三等 本社特製메달 (一個式) 五人
四等 新東亞購讀券 (一月分式) 廿人

出場校名

開城好壽敦女子高普校
平壤公立高等女學校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京城第一公立高女校
京城公立女子高普校
京城女子商業學校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載寧明新女學校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京城第二公立高女校

京城女高

海(해) 海(해) 海(해) 海(해)
東
道莉麻
木(목) 緞(단) 苧(저)

女子商業

時計 眼鏡 萬年筆 印章 名刺

三星堂時計
京城鐘路
電光一二五九 振替京九六二九

梨花女高

綢緞布木
鐵道局消費部指定店
李進兩商店
電光一八九三 京城鐘路二丁目

第二高女

⊕ 실고초
가을김장에는 반듯이 ⊕標 실고초를 使用하야 주시요
今村洋行
京城禮智洞 電話光化門六九番 振替京城三〇〇二番

第一高女

書籍
金剛堂書店
新刊古書金十錢부터六十錢까지
其他特價品豐富
新刊改造社世界大衆文學全集廿錢均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六十九番地
電話本局三三七番 振替京城一三七九七番
新刊古本書籍目錄進呈二錢切手要함
古本高價買入御一報次第訪問하니다
和洋製本함

好壽敦女高

親切ト確實ナ商店
帽子專門卸問屋
營業品目
中山帽子 中折帽子 烏打帽子 學生帽子 男女學校制帽 幼稚園帽子 別珍帽子 切地子供帽子 男女子供帽子 防寒帽子 運動帽子 其他帽子一切
目錄進呈
京城南大門通三ノ二四
合名會社 坂井帽子店
電話本局三七六〇番 振替京城八六八一番
工場 京城北米倉町九〇番地 電話本局二七五三番

第一高女

營業種目
一、勸業債券
二、復興債券 賣買
三、公債
四、同……擔保低利金融
五、當籤番號表發行販賣
六、債券의當籤割增金及元金、利子支拂
日本勸業銀行別動機關
(本店、東京、日本勸業銀行構內)
株式會社 日本勸業證券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二十一番地
電話光化門九七三番 振替口座京城二九七番
營業時間 自午前九時 至午後四時 (土曜日モ平日通リ)

淑明女高

부인성약
益(익)母(모)草(초)엑기스錠(정)
前醫學專門學校敎授 京城帝國大學醫學部講師 醫學博士 朴昌薰先生推奬
모-든냉병 대하증 경도불순 기혈부족 포태못하는데는

京城府仁寺洞八八 本舖 大成堂藥房 電光二三五六番 振替京城七八九二

平壤高女

營業科目
證券、株券、小切手、帳簿、地圖、繪圖書、名刺、表紙、雜誌、紙器
パンフレット・カタログ
ポスター・レーベル
シーリング・スタンプ
特種防止印刷
書籍雜誌各種出版
三色寫眞版・歐米印刷物
其他高級平版並凸版印刷

(本社光景)
京城太平通二ノ一
東洋オフセット印刷株式會社
電話本局二一〇一一・二四〇〇 振替京城一七九九

淑明女高

京光式 籾摺機
本機에特點은 他機는「輪車式」及「사슴式」으로地方各人士에若干한念慮는御無用
檢査米大評判
各地에檢査米에大評判
京光式
籾摺機、精米機
麥粉機、製粉機
製油機、鑛山機
諸機械、附屬品
精米所設計
京城觀水町七十一番地
李光淑鐵工所
主任 李光實
電話龍山九六二番

明新女校

朝鮮博覽會賞牌受領
運動靴의覇王!!
開明靴
籠球靴

京城府中林洞一五
太平商工合資會社
電話本局九七三番

女子商業

書籍·雜誌의新陳代謝
新刊雜誌迅速配達
古本買入
東光堂書店
京城府寬勳洞一二三番地
電光二一九二番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明新女校

四時常備之健胃消滯藥
령신환
旅行·居家에 登山·臨水에 訪問·接客에 讀書·演說에 觀劇·集會에 問病·吊慰에 乘車·乘船에 飮酒·飽食에 氣鬱·神疲에
령신환 活用합시오
價 十二錢 二十錢 五十錢 一圓
本舖 京城黃金町二丁目 朝鮮賣藥株式會社
食傷 氣鬱
朝鮮賣藥 朝鮮賣藥株式會社製造發賣 五千圓大懸賞 締切來二十日限
「령신환」每二十錢包에寄贈用紙一枚式부치오니 明聞에 自由히 하시도록 합시오

進明女高

鑛山用藥品都賣商
京城本町三ノ六七
阿部藥房
電話本局四八七 四二六六番

平壤高女

特製 月桂冠 壜詰
絶對로防腐劑를含有안이함
宮内省御用達 株式會社 明治屋 發賣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優勝의榮冠 第十回全朝鮮

懸賞規定

一、本頁廣告中에揭載한全朝鮮女子庭球大會出場校中에서는學校가優勝하겟는가마쳐보시오

二、優勝하겟다고생각하는學校名과그欄內에잇는商店及商品名을記入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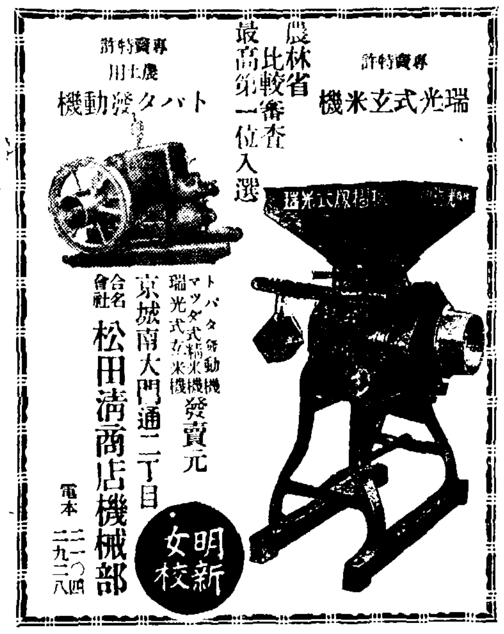
解答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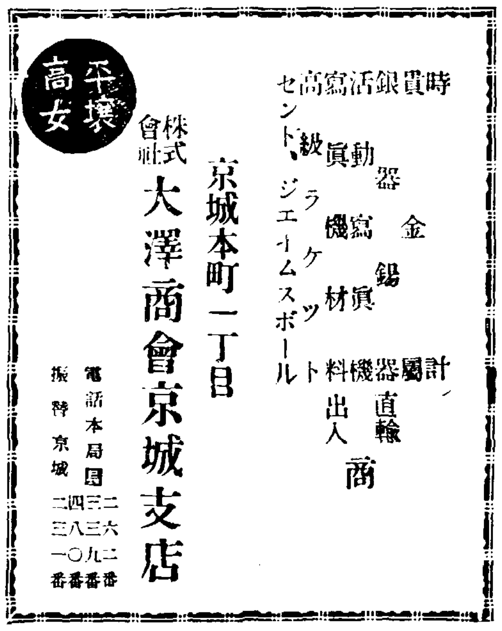
一、答案은官製葉書로一人一枚에限함(要住所氏名明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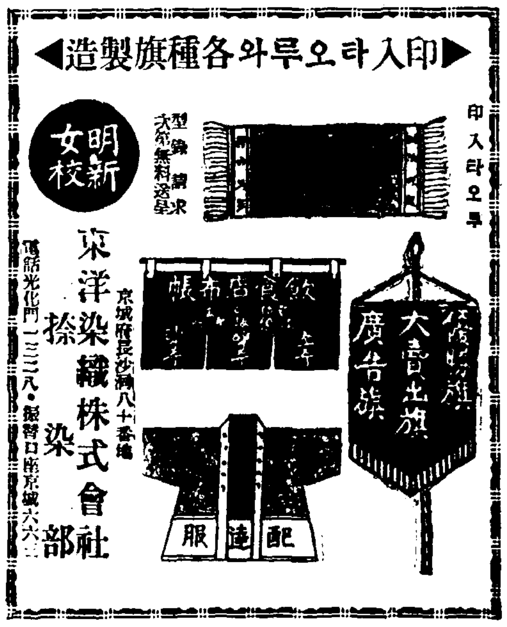
二、投票締切은九月二十二日外지限함(當日附消印이잇는것만有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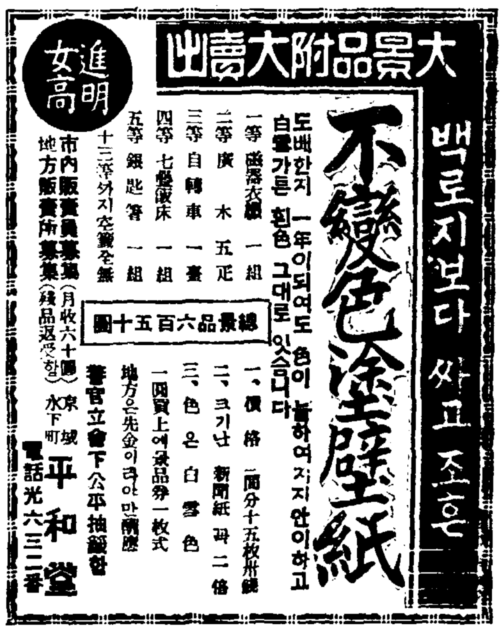
三、宛名은京城府光化門通東亞日報社廣告部懸賞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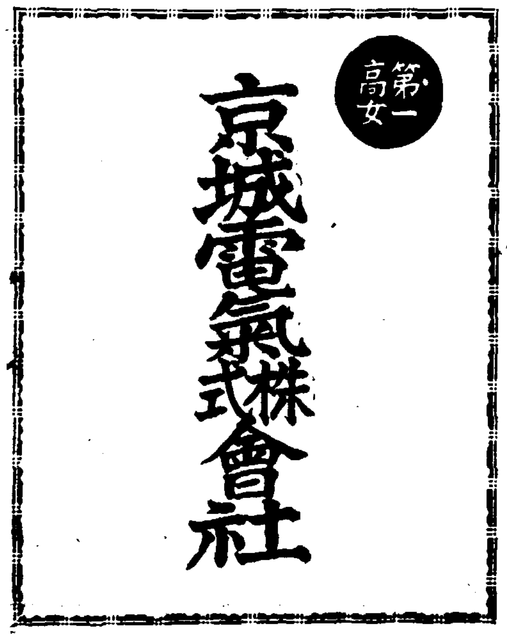
一、發表는九月二十八日本報紙上에揭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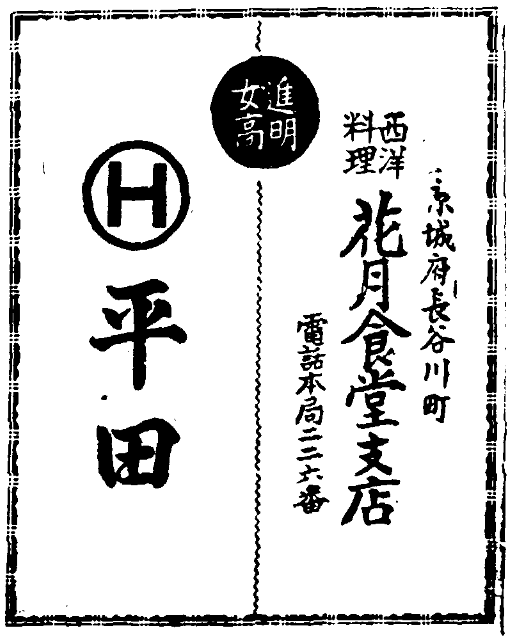












地方論壇

勞動夜學校 垈地賣却
責任者의 考慮를 促함

春浦 一記者

함열 春浦勞動夜學校校舍敷地에 對하야 本欄에서 論한바잇거니와 春浦勞動夜學校校舍는 當時의 春浦靑年會時에 徐鍾奎氏로부터 數百圓으로 買受하야 當時의 春浦靑年同盟春浦支部가 十餘年間 無所負責의 教養에 努力하얏섯다 그런데 그後 梵魚寺가 垈地를 來郡當局으로부터 買受한바 다시 梵魚寺는 金聯鎭氏에게 五千圓에 賣渡하야 버렷다 所有主가 賣買하는것은 自由이겟지만 이숲이 多少有益한것이나 마 財政이 窮乏한것은 共知하는바이며 靑盟春浦支部가 校舍問題에 對하야 또한 財政이 없는가 언다는것도 잘아는바다

그런데 梵魚寺에서 校舍移轉에 對하야 百圓을 寄附하겟다는것과 金聯鎭氏도 五十圓을 寄附하겟다는것은 勿論感謝하는바이다 그러나 校舍는 移轉費를 合하야 七百數十圓이나 결린것을 百五十圓으로서 校舍를 移轉할 場所가 잇다할지라도 오래 되지 못할것이니 亦是問題이다 그러면 梵魚寺가 社會事業에 百圓이나마 寄附하겟다하얏스며 金聯鎭氏도 亦是 五十圓을 寄附하겟다 하얏스니 좀더나아가 現校舍를 買受하야 줌이 어떠할가하는바이다

郵便物延滯

安溪 一記者

從來의 安溪郵便은 自動車로서 連絡이되지아니함으로 郵便의 遞送이 不能하야 住民의 不便이 莫甚하엿는데 當局도 이에 着眼하야 一般의 要望에 副한다는 意味로 今年四月中부터 自動車連絡이 實現되엿다 從來午後六時나 七時에야 到着되든 郵便物이 午後二時 即四五時間이 短縮이되엿슴으로 一般은 熱望의 一部分이 實現되엿다하야 安堵할餘裕도 업시 새로운 現象이 나타낫스니 그것은 從來는 아모리 降雨가 잇드라도 步行交通만 될때에는 郵便의 延着이 없엇는데 지금은 비가 조곰오지 아니한비만 오드라도 依例 一二日式 쉬는것이다 今年과가튼 旱年에도 自動車連絡을 開始한後 不過三四個月間에 郵便積滯가 四五回에 及하엿스니 吾人의 推定에 依하면 從來人力으로써 連絡될때이면 不過一二回엇스리라 고한다 못노니 當局은 郵便自動車와 郵便運搬을 契約할時에 降雨日에 休止해도 無關하다 하엿든가? 休止와 降雨에는 臨時的 方便도 업엇는가? 日前의 經驗에 依하면 自動車가 不通될時는 臨時도 人力으로서 運搬하는것이엇다 그러나 迅速히하야 斷切됨이 업도록 하는것이아니고 一二日式 積滯한後에는 마지못하야 如斯한 代行的方便을 取하는것가텃다 筆者는 이제새삼스러히 郵便當局의 使命을 말하고저 안는다 대처 安溪의 住民이 自動車로서 郵便連絡을 要望한 趣意가 那邊에 잇는가는 不言可知 일것이다 또한 自動車가 不通될때에는 代行的 方便이 잇는것도 알수잇다 當局의 反省을 促한다

授業料受難時代

安城八個公普에 月謝滯納七千圓
◇수업료 강하하여도 그모양
督促狀發付差押斷行

【안성】 안성군내(安城郡內) 八개공립보통학교(公普校)의 학생수는 二천여명이 一개년간 납부할 수업료는 一만三천여원인바 본월一일현재 체납액이 七천육백여원으로 一개년 예산액의 六할이나 되는바 수업료의 수입은 학교경비상 중요한재원인 만큼 비경리상 크게 타격을 밧게되엇스므로 해마다 불랑하게되는 체납자를 없애기 위하야 이번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산차압을 단행하기로 하얏다한다 나머지는 한편으로 퇴학생이 속출하는 데 최근수개월간에는 외외로치 납자가 만허져 각학교 당국에 서는 동군청에서는 금년부터 수업료를 저감(종래의 七十전을 六十전으로)하얏스나 종

順天各普校 授業料滯納
순천 보교에만 수백명에 달해
麥凶, 農村不況原因

【순천】 전남순천지방(順天地方)은 전군十二개보통학교에 종래 수업료 납입성적이 타군에 비하야 실로우량하야 왓섯다는

群山京場里에 運動場을 新設
十月中旬에는 完成

【군산】 군산부 공원미테 종래에 잇든 운동장이 좁어서 불편한 점으로 경장리(京場里)에 다 옴긴다는것은 긔보하얏거니와 그에 대한 공사는 오는十월중순에는 완성될것이며 시내각단체련맹으로 시민커운동회를 개최할모양이라고 한다

新校長就任
高敞高普校

전북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等普通學校)교장 심준섭(沈俊燮)씨가 금년三월에 신병으로 인하야 부득이 직을사한후 그 자리가 비여잇든바 금번 동교교무주임으로 五개년간 근무하고 잇든 류찬식(劉燦植)씨가 지난 十七일부터 교장으로 취임하엿다

서는 그타개책에 고심중이라한다 그런데 이와가튼 갑작이 체납자가 속출하는원인은 一반적농촌피폐에 잇스나 그중으로는 금년은 맥흉(麥凶)이 들엇고 현하 시기가 농가의 궐량을 초래하기 쉬우며 신곡은 가즉일러 실로농촌의 一대수난기임에 연유한바라한다

新興에 又復黃金夢
朝窒서 發電設置
중역과 관변수노자 래왕빈번
位置는 元平? 加平?

【서흥】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朝窒會社)에서 함남신흥역(咸南新興驛) 소 설치공사가 계속기공될뜻하다는 풍설이 군내에 성행한다 그것은 근일회사의 주역들과 군수기타 관변수노자들이 자동차로 천불산역(千佛山驛)부근에 설치하는 제四호발전소공사를 준공하려하야 모처럼 三천의 로동자는 답처오는 공포를 느끼

검은안해임코 警察에 哀願

【안계】 지난十六일 경북 의성군안계면(義城郡安溪面)주재소에서는 어떤 청년 한명이 들어와서 나의안해를 차저주시오하며 눈물저운목소리로 애원을 하얏다는바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들건대 긔괴하연은 경북례천군 풍양면청곡리(醴泉郡豐壤面靑谷里)에 사는 김유봉(金有鳳)으로서 그외안해되는 리연련(李蓮)과 질부되는 최귀매(崔貴梅)등 두젊은 녀자가 지난十三일밤에 집안사람의 잠자는틈을 타서 삼경의달을 밟고 어데인지 가버린것을 춘춘이 탐문하야 이곳까지 온것이라 한다

金泉高普校 新築校舍로 移轉
◇지난十五일부터

【김천】 경북 김천고등보통학교(金泉高等普通學校)의 본교사 건축공사를 지난一월부터 착수 진행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동안 현장감독인 태전수차(太田秀次郞)씨와 청부업자 서원한감하에 공사는 착착진행되어지난八월二十오일에 준공되엇슴으로 지난十二일에 본도영선과 산수(山手)기수가 출장하야 검사를 마치고 十五일부터 본교사로이전하엿다한다

(사진은 준공된본교사와 최승철당녀사)

於之屯水組 兩派가 陳情
創立, 反對兩派活躍
창립위원들이 도장밧는중

【사리원】 얼마전에 봉산군어지둔(鳳山郡於之屯)수리조합(水利組合)창립파에서는 창립위원들의 촉진운동차로 또 수지(樂)을하야 달라고 그실행의원들을 한층 더 노력하야 총독부에 진정을하게되엇다 그후소식을 드러보면 창립위원들은 이미 그당국과 총독부에 보도한바어니와 종이라한다 그리하야 반대파와 창립파는 생위원들은 총독부에 진정당시 조도당국자들을 맛나지못한 관계로 그장래가 모다주목거리가되는데 지난十六일에 재차상경하야 일반은 만흔흥미를가지고잇다는데 그뒤를따라 수리조합의 반대파도 역시 가평면무려(加平面武呂里)와 자조래왕항으로 그풍설이 일어나게를 주목하고잇다고 한다

殘忍한 男便 己妻를 打殺
소소한 일에 곤봉으로 따려
山中埋葬, 急死報告

【함흥】 함주군하에 또한괴카 죽인 사실이 발견되엇다 지금부터 약一삭전일인데 함주군 주지조 양면 천의산(咸州郡下朝陽面天依山)사는 서흥준(徐興俊)은 그 안해 금부터四년전최소근(崔小斤)이 병에걸려 죽엇다고 감추어 오든것인데 경찰에 알려저서 하흥경찰서에서 엄중히 취조중이라고한다

【한흥】 ... 순一천명을 동과한 대청동을 ... 무고 동운시반에 폐회하얏다

面書記等의 送局又留置

【울산】 근래울산 면서기동와 풍기가 극도로 부패되어 말이 사자하든중 지난九월十일에는 두서면(斗西面)서기이던 김용호(金容鎬)(二七)가 사기가도박죄로 공범 인과가티 부산검사국으로 송치되엇고 지난九월十三일 하상면(下廂面)서기 장원준(張元中)(三五)은 게집에 유인죄로 송치되어 엄중취조중 잇섯다

觀衆千餘名 朴女史獨唱會

【대구】 대구학생긔독청년회 주최 본보대구지국후원의 박경희(朴慶姬)녀사독창회는 예정과가티 十六일 오후여덟시부터 공회당에서 개최하얏는데 관중은 무려 一천명을 돌파한 대성황을 이루고 동운시반에 폐회하얏다

昌原匡救工事 五萬八千圓
금년도는 二만八백원으로
오는二十일경부터

【마산】 경남 창원군에는 소위 시국광구비라는 구궁공사비가 금번에 개최된 부윤군수의 림시회에서 추가예산으로 금년도만의 할당이 二만八백원으로 오는二十일경부터 약八十정보의 사방공사 실시에 착수케되다는바 방금실시중에잇는 二년간 계속사업인 동북량면의 년도말까지의 공사비三만八천원를 합하면 년도말까지의 총공비가 五만八천원에 달한다 한다

음가진상남, 웅남(上南, 熊南)량면의 사방공사를 실시키로관계면당국에서도 긔성회를 조직하고 각요로당국에 측컵진정까지한바도 잇것거니와 이를구궁사업으로 실현코저 노력해오든중 진천(晋川)은 마침 시국광구에 관한 부윤군수회의를 긔회로 적극적 활동을한결과 다행히통과되어 二만원의 할당을보게되엇다는바 오는二十일부터 공사에착수하야 년도말까지 완성하려하며 엽금은 一일五十전비례로도 녀녀히 四만인을사용하게되리라한다

上南熊南救工 二萬圓割當

【마산】 마산항의 중대 영향

碧養公普認可
회산리개량사숙에서

【홍천】 홍천군벽양면 공립보통학교(碧養面)는 지난 七일부로 허가되엇다는바 수업은곳선생이 결정되는때에 회산리(回山里)개량사숙의교사에서 당분간 은하리라한다

九월부터 광본회조부(光本回濟本)에게 협정을요구하야 광본은 기위하야 조긔측에서 경쟁을 회피하

乘客만利益
兩汽船競爭에

【부산】 부산과 전남려수(麗水)간항로는 지금까지 부산조선기선회사(朝鮮汽船會社)에서 독점적으로 경영하여왓는데 작년부터 ... 은 부산려수간항로에는 승객을 취급하지안코 조긔만이 취급케하고 매항해에 백二十원씩을 광본에게 지불하여오면 승객에게는 매인二원七十전씩을 바덧든바 금년九월초부터는 백二十원씩을 지불치못하겟다함으로 피차간승객을 쟁탈키위하야 운임을 一원七十전을 一원六十전으로인하하고 승객을 쟁탈하는때

白花 朴花城女史作 李靑田畵 【102】

매불선자 (媒佛善者)

불도를 신봉하엿다 그럼으로 각고을 부중으로 부터 각촌락까지 흔히 절이 잇섯든것이다 이 게성사(戒成寺)라고 하는중은 주승 포덕대사(布德大師)라고 존경하는 동리사람들이 매불선자라고 숭하여 불러다 당시에는 외래히 숭려들이 백성의 우에서 항상 존경을 바덧스나 매불선자는 더욱이 존경과 신앙을 바더든 것이다 매불선자라는 존칭의 유래는 이러하엿다 자손못낫는 부녀들이 사원으로가서 三일이 는 이러하엿다 자손못낫는 부녀들이 사원으로가서 三일이 상 몃달이든지 중과한께 부처에서 주야 정성으로 긔도를 드리며 자손을 엇는데서 시작 이엇다

안흔곳으로 언덕을 외지하야 게성사(戒成寺)라고 하는절이 녀들이 ... 잇섯다。 고려조에는 불교가 국교 이엿든고로 왕실 부터 서민까지 ... 된 것인데 이상 하게도 자손을 엇은 사람이 만핫다。 그러하야 모든 사람들은 숭려의 중개와 지성으로 인하야 부처님 에게서 자손을 어듬이라 하야 자손나키 위하야 가려 빌어주는 중을 매불선자 라고 존칭한 것에서 비롯하엿다。

한편씩의 눈은 숙하게도 신통이도 여러부녀의 자래를 한번에 보아버린다 몃십년의 런잇는 그가 아니고는 보통사람은 어림도 업는 ...

삼성상게 라는것은 ... 게중에서 불살생, ... 색 등을 세번씩이나 ... 생각하고 경계 하라는 뜻이니 이것은 매불선자가 누구를 맛나든지 첫인사의 말이요 남무아미타불은 어로나 커험 ... 쓰는 것이다

이러케 부녀들이 와서 매불선자 에게 뵈올때 혼자이면 매불선자가 직접으로 「선남선녀 삼성상게 남무아미타불」 ... 하야 법당 작우편에 ... 오시오 아미타불 ... 을 둘한 쳐은 방으로 들어보내며 여럿이 온때는 상자중에 나와서 여러부녀중 가장 용모와 자색이 나은 젊은 사람 넷을 택하야 법당좌우편 게소에 둘씩 나누아 들어가 게 한다。

그러면 택함을 닙은 부녀들은 게소에 들어가 게외불같아 닙고 아려사목과 옷목으로 누아 안저서 긔도를 정성것 드 리는 것이오 남은 부녀들도 이 려케 번갈아가며 차례로게소에 들어가는 것이엇다。

「선남 선녀 삼성 장게 남무 아미타불……」 하고 손으로 부비는 염주가 잠간 올나가면서 다시 소리가 적어져자 한눈은 감기고 다른 한눈이 열녀진다。 매불선자의 눈이 어려게 좌 우가 번갈아 가면서 번개가티 쉼하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 이 업섯다

이러케 떠지는 매불 ... 게 니려나서 불당압 마루까지 태도로 생불이나 처럼 유유하 게 니려나서 ... 를 기다려누려면 그는 엄청한 ... 나오며 두눈을 딱 감고 백팔염주를 목에걸어 두손으로 숨을 부비며 입술을 들석들석하면서 념불을 수지안는다 그러다가 마루압까지와서 외옥하게 서게 되면 부녀들은 합장하여 배례 하느라고 머리를 기피 수긴다 그때에 생긴 안떠러진듯이감 기잇는 매불선자의 두눈중에 한눈이 쌍긋이 열니면서 번개 가티 눈동자를 구을니며 입으 로는

娼妓投海自殺

【마산】 마산부신정(新町) 오카미카 모다 (馬山府新町) ... 十七일정오경 마산원정(元町) 부두에서 일하든사람들이 발견하고 곳 구하여 ... 이 발견되엇스므로 부근 ... 창기 최류색(崔柳色)(二二)으로 관명되엇다 ... 소생하여지든 조금도 없엇다하며 원인은 방금마산서에서 조사중이라한다

溫井院殺人劇

【온정】 평산온정원(平山溫井院)에서는 소년단주최와 본보지국후원으로 지난 十일부터 군내각리를 순회하며 ... 이 되엇는데 ... 씨광장에서 흥행하엿다한다

이러한 부인들은 대개 서 이상 으로 사십이내의 부녀들이나 그중에도 이십부터 삼십세 까지의 꽃다운 부녀들이 처임 만핫든 것이다。

포덕대사라는 매불선자는 몸이 통통하고 키가 큼직하며 미목이 호남자격으로 생긴 사람으로 삼십사오세 가량된 풍채조흔 사람이다。

그는 언제든지 두눈을 뜨는 때가 별로업시 불전에 단좌하야 정성 스럽게 념불을 한다。 매일 닥지하는부녀들이 혼자이거나 여럿이거나 불당아페와서 합장배례하고 매불선자 나오기 를 기다려누려면 그는 엄청한 태도로 생불이나 처럼 유유하

咸興豐山間의 二等道路開通
四년간 三十三만원을 요해
開通式은二十八日

【신흥】 신흥(新興)황수원(黃水院)간 二등도로부설공사는 총공비三十三만五천여원으로 四개년여의 사월을요하야 이제겨우준공되어 오는二十八일에 개통식을 신흥에서 거행하려하는바 일로부터 풍산(豐山)갑산(甲山)방면의 물화교통은 신흥을경유하게될것이며 함흥공산간의 거리는 불과四十二리로서 동지방에서 복왕을 우회하든불편이 업서질것이라고한다

會合

◎第五回教育點呼會 昨十七日中和公普校에서開催

◎蔚山朝鮮酒組合定期總會 來廿二日蔚山郡廳會議室에서開催

消息

◎川島義之氏(朝鮮軍司令官)南鮮巡視次十六日來馬十七日大邱에

朝鮮音樂의 밤
(朝鮮樂器會正樂部總出演과朝鮮의一流名妓名唱助演)

◇日時 九月十九、二十兩日
◇場所 水原劇場
◇會費 五十전, 二十전(小人) (本報讀者에限하야三十전)
◇主催 東亞日報水原支局
◇後援 朝鮮樂協會 太平洋라디오商會

謹告

任記者 金游顯

任寫眞班 昭和七年九月十五日 東亞日報社高城支局 梁正來

任記者 隋川三 李勝吉 李輪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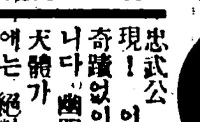
任顧問 昭和七年九月十五日 東亞日報社東上分局 韓鋼老

李光洙 作 / 李象範 畵 / 吳世昌 題 / 金昌 ... 書

李舜臣

今日出來!! ▲即日發賣開始▼

一名! 壬辰兵亂史



忠武公 再生! 壬辰亂 再現! 이것은 奇蹟입니다。 奇蹟업이는 不可能한 일입니다。幽明이 相通치못하고 天體가 逆轉치 못하는 限에는 絶對로不可能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奇蹟이 업이 壬亂의 前後를 다시금 겪엇스며 李公의 全豹를 또한번 뵈엇습니다。 奇蹟아닌 奇蹟으로써 慘憺한 國都의 北遷을 보앗고 壯快한 閑山의 大捷을 보앗습니다。 八道江山을 뒤흔게한 無數한 勇士의 活躍을 보앗고

奸惡한 私黨이 廟堂에 蠢動하든 光景을 뚜렷하게 보앗습니다。

이같은 時勢와 이같은 處地를 호을로 가루맡어 피와 고기와 정성의 全部를 들어서 蒼生救濟의 祭物로 바친 우리의 忠武公! 우리는 公의 一擧手 一投足을 보앗습니다。 우리는 公의 起居動作의 全部를 보앗습니다。 五官以外의 感覺에 리도 들엇습니다。 公의 말소리숨소 부되처는 公의 靈氣까지도 보앗습니다。 捨生取義를 一死에 붙이는 壯嚴한 氣와 아울러 蒼生의 前途를 浩嘆하는 慈悲의 至情도 보앗습니다。

奇蹟아닌 奇蹟이란 무엇인가? 昨年 그때에 公의 位土問題에 端을 이르키어 公을 追慕하는 民衆的 精誠이 牛島山 河를 송두리처 울죽일때 天下의 期待를 등지고 東亞日報를 通하야 우리의 眼前에 展開되엿든「李舜臣」一篇이니, 우리文壇의 巨匠 春園 李光洙先生의 心血을 다한 솜씨가卽 그것입니다。

累百年前 故事가 紙面에 展開될때 우리의 心眼은 얼마나 불을 켯습니까? 累百年前 故人이 紙面에 活躍할때 우리의 心血은 얼마나 끓엇습니까? 壬辰兵亂의 實錄이오 朝鮮民族性의 嚴正批判과 아울러 五百年偉人인 公의 生平을 記錄한 一書, 正히 民族의 生命과 한가지로 永劫의 紀念이될지니 朝鮮 사람된者 맛당히 秘藏하여야 할것입니다。

卷頭에 肖像畵添付

本書의 出版은 거의 資料를 念頭에 두지를 안엇습니다。 그래서 모든 挿入이 過多함을 不拘하고 鄭上瑞花의 寶을 얻으려고 挿畵全部도 凡가로하엿습니다。 紙質도 上等白羊으로, 寶로 實으로 아마 出版界에 드믄 好作일줄 確信합니다。 더구나 卷頭에는 靑田 李象範 畵伯의 苦心力作인 忠武公의 肖像을 실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二千萬이 다가치 한번씩은 가추어 두어야 할것입니다

「李舜臣」 四六版 洋裝 挿畵百四十二片 特價貳圓(送料金二十錢)

發行兼總販賣所 京城府笠井町百十九番地 大成書林 振替京城 一二三八番

▼書籍目錄請求次第無代送呈합▼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 ... 京城黃金町入口 ... 診察 十二時半까지...

保健 生食法 ... 京城市外新設里 ...

九月十五日부터 ... 料金 階上 大人 小人 / 階下 大人 小人

◇朝鮮인의社會的 ... 新秋映畵界 ... 日本版 ...

人間廢業 9卷 監督…로벗 ... 主演…하…

◇新作 ... 初(첫사랑)戀 9 監督… 主演…

大...太平洋映畵 ... 東京美術映畵 ...

團成社 ... 全世界 ... 當九月十八日 ...

火山 全十二卷 ... 主演 ...

◇ ... 空閑少佐 全六卷 上海事變中第一に擧げらるべき悲壯譚、皇國の武威を中外に發揚した上海戰線の露と消えた空閑少佐の映畫化!!

◇パラマウント映畫 ... ジョセフ・フォン・スタンバーグ氏監督 マルレーネ・ディートリッヒ嬢 主演・クライヴ・ブルック氏 アンナ・メイ・ウオン孃

上海特急 全九卷

◇ ... 時代劇 ... 谷川伸 ... 吉川 ... 八百子 ...

小判しぐれ 全八卷 ... 三年前に江戸に拉して雲れた男を追つて はるばる江戸に出て來たおまめ ... 新興キネマ ... 朝鮮劇場

[illegible] 표정이 [illegible] 사자가 [illegible] 그때로 그들은 표정으로 [illegible] 표정을 [illegible] 아모 [illegible] 나하가지고 사 [illegible]

朝鮮史 (六十四)

張道斌 述

蓋蘇文이 이에 大軍을 發하야 救援하기로하고 六月에 北部(곳 外北部)耨薩高延壽、南部(곳外南部)耨薩高惠眞을 命하야 大軍十五萬人과 靺鞨兵을 거나리고 安市城을 救하게하니 唐主世民이 그를맞고 [illegible] 그麾下諸將을 [illegible] 延壽의 [illegible] 安市城을 [illegible] 그를 攻하야도 遠 [illegible] 할수업고 退師하고저하나 [illegible] 마랏스나 그러케하면우리군 敗하리라하더라 이때에 高[illegible]—年老經事하야 [illegible]에 從容하얏스매 [illegible] 世民이 內亂을 [illegible] 外方을 征服하얏스나 才能잇는사람이라 이제그가 全國兵을 가지고왓스니 우리는 單士를 留하야 戰치아니하고 多日持久하면서 奇兵을 보내 敵의 糧道를 끈으면 敵이 食이 盡하야 戰코저하나 戰할수업고 도라가고저하나 길이 업스리니 그때면 敵을 이기리라 하되 延壽의 等이 듯지아니하고 兵을 進하야 安市城四十[illegible]에 至하매 唐主ㅣ 며 [illegible] 이에 大 [illegible] 시켜 突厥兵千 [illegible] 犯하거늘 延壽ㅣ 逆 [illegible] 延壽 [illegible] 이 佯北하고 이에 [illegible] 安市城東南八里되 [illegible]에 至하야 山을 依하고 止 [illegible]이 我軍 및 靺鞨兵 [illegible] 世民이 我軍을 望 [illegible] 하야 使者를 延壽의 [illegible] 갈오되 [illegible] 英雄의 [illegible] 이오 戰爭은 本 [illegible] 이제 내가 侵略한 [illegible] 延壽의 等이 [illegible] 軍을 退 [illegible] 그 남방에 [illegible] 一萬五千兵으로 我 [illegible] 延壽 [illegible] 北 [illegible] 鼓角이 鳴하 [illegible] 四千으로 [illegible] 馳來 [illegible] 長孫 [illegible] 伏兵一萬五 [illegible] 三 [illegible] 分하야 [illegible]

합새 我軍이 李世勣의 軍을 圍하야 猛戰하더니 마침 我軍이 約束을 失하야 陣이 亂하나 敵將 薛仁貴ㅣ 我軍의 陣을 突하자 敵將劉弘基、楊弘禮의 等이 合하야 我軍을 擊하니 我軍이 大敗하야 死者가 二萬餘人이라 延壽의 等이 山을 依하야 自固하니 世勣의 等은 我軍을 包圍하고 無忌의 等은 我軍의 歸路를 斷하더라 그러나 將士가 만히 奔遁하고 延壽惠眞이 餘衆 三萬六千八百人으로 敵에게 降服하니 唐主ㅣ 延壽惠眞以下 將校三千五百人을 留하고 以外兵士는 다ㅣ 奔還하얏고 世民이 靺鞨兵 三千三百人을 沒數히 坑殺하니 이는 매양 靺鞨人이 先鋒으로 敵兵을 擊한때문이더라 我軍의 馬五萬匹、牛五萬頭、明光鎧萬領이 다ㅣ 敵의 取한바되니라 世民이 兵을 安市城東嶺으로 옴기더라 이때에 蓋蘇文이 使臣을 靺鞨(土耳其族으로 今의 突古地方에서 國을 建하니라)에 보내 眞珠可汗에게 厚利로 遊說하야 唐을 攻하기를 勸하얏스나 眞珠可汗이 唐을 畏하야 動치못하고 蓋蘇文이 百濟에 使臣을 보내 援兵을 請하얏스나 義慈王이 오즉 新羅를 侵掠할 따름이오 直接으로 出兵치 아니하니라

七月에 世民이 李世勣과 함께 安市城을 攻하니 安市城主 梁萬春이 將士를 命하야 城上에 擧하야 敵을 罵詈하다가 唐主의 旗蓋를 보매 곳 鼓角을 大鳴하야 唐主를 威脅하니 高延壽、高惠眞이 唐主에게 말하되 安市城을 攻치말고 곳 東으로 烏骨城(遼山城)을 攻하면 烏骨城城主는 老耄無力하야 [illegible] 도시 敗할지니 烏骨城을 破하고 鴨綠江을 건너 平壤을 取함이 好하다한대 長孫無忌ㅣ 갈으되 不可하다 今에 建安、新城의 高句麗兵이 十萬이나 되니 唐兵이 烏骨城을 向하면 高句麗兵이 다ㅣ 唐兵의 後를 躡할지라 이제 安市城을 破하며 建安城을 取한後에 [illegible] 世民이 이에 [illegible] 하야 卑沙城의 張亮을 불르니 張亮이 海軍을 거나리고 安市城으로 來會하얏고 八月에 世民이 安市城南으로 陣을 옴기더라

紙上病院

정신에 탈

【문】 二十四세인데 四五년전부터 신경이 불순하야 밤마다 三경이 다지내도록 잠을못자고 공상으로 지내며 낫이면 온대 양만 잇어면 매사에 착수할맘이 나지안코며 긔력이 업서지며 그대신 밤이되면 조치녀부터 마음이 깃버지며 긔운이 나며 활동하기 조흡니다 요사이는 전보다 더 심하야 이제는 긔억력이 업서지고 꿀이 항상무겁고 머리에 힘업거가 나오고 얼굴빗은 항상 좃지못하야 무엇인지 불도다서 어지럽습니다 돈쥐거둘게 처료하는법을 가르처주시옵소서

【답】 신경쇠약증이 만성이되면 약외처료로써만은 낫기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소극적수양방법도무효합니다 그러므로 될수잇는대로 병파약에대한관념을잇시라도 속히버려고「죽지아니하면 산다」를려고 용긔를 떼이면 무슨병이든지 살어서버렌다」는대담한 결심을가지고 적당한일에 취미를 부치고꾸준히 노력하시며신분에적응한희망을 실현시키어 그일에열중하시는것이 무엇보다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너무과로하지나마옵음 조금히가지지마시오 (京城帝大神經科教室安齋一)

월경이 줄엇다

【문】 三十세된녀자이온데 생산은三四차하얏습니다 전부터 월경이 넘우만터니 지금좀줄 [illegible]

【답】 [illegible] 보면 그소증가운데 숨도긋고 고룸가튼것이 좌우하야 보입니다 장매병이 아니면 알기가 거정이기로 조용하문을 엇기 바랍니다 (京城帝大産婦人科教室尹泰權)

무릅에서 소리

【문】 二十九세 남자이온데 三년전에 장질부사에걸려 심히 고통을당한 이후부터행보 또는좌긔시에 두무릅에서 떡떡 소리가납니다 모외사에게 진찰한즉 지방이업서 그런즉차차원긔가 회복되면 입서진다 하얏스나 지금은 더욱심합니다 치료방법과 약명을하교하야 주시옵소서(고민생)

【답】 무릅에서 소리가 나는것은 중병후에 건강이 회복도가 된에나 흔은곧이 피곤하고 신경이 과민한사람에게 오는증세이니 그러심려될만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함으로 심신을 안정케하며 써써로 무릅을주무르며 펏다 오그렷다하는운동을 계속하시고 보약을잡수시오 만일병늠 근심하시든지 석석하는소리를 두려워서 다리쓰시기를 주저하시면 더욱 심하게 되는것이니 아모렴려 마십시오 만일관절통이 더하야 지는때에는 외사에게진찰 바드십시요 (京城帝大神經科教室安齋一)

방광염

【문】 二十세처녀인데 방광염이 잇서와모병원부인과의사에게 ヘサラミン주사를 몃대를바덧스나 아즉낫지를 아니합니다 오줌눈후가 조곰아프고하로에 五六번소변을봅니다 오줌물빛이 만호면 아프지안코 적으면 아픔니다 그리고오줌이탁합니다 지금결혼하게되엇는데 결혼해도 관게치안홀싸요 하교하야주십시요 그리고우유가튼 백색대하가조곰씩잇습니다 속속히 하교하야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읏모가늘바진니다(一讀者)

【답】 방광염도 낫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더치료를 바드신후 완치가된후에 결혼을 하십시요 그러치안호면 결혼하신후에방광에 고통이심하게 되는 일이잇습니다 (京城帝大産婦人科教室尹泰權)

【답】 방광염인것습니다 그러고몸이업스면 다만 아래배가차지 안케보온하시면 조흡니다 또 매운것 신것등에자극잇는음식물을 잡수시지마십시요 (京城帝大産婦人科教室尹泰權)

新刊紹介

▲農村少年 九月號 京城府松峴洞 八文化書館發行 定價三錢 振替京城一四四六番

▲最大時局に關する對外諸條約摘要 滿蒙諸條約、協約又は契約、滿蒙問題、日露講和條約滿洲に關する日淸條約附屬第二十一ヶ條問題其他 釜山府草梁町五一三 釜山印刷合資會社 發行 定價六十錢 振替釜山四一三四番

형과아우 [5]

김동인 작
리상범 화

저녁에 형재는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들어갓다。비록 표면으로는 병문안 이나마 속으로는 이것이 영결의 인사엿다。손을 맛오 잡고 가즈런히 들어온 형재는 위독한 아버지의 알에 꿀어 안젓다。

『아버님 좀 어떠십니까?』

따즈막 문안 눈물을 안흘러려고 입을 악물엇지만 눈물은 저절로 밖으로 흘럿다。

『오냐 왓느냐 아버지는 다시 회생할수가 업겟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마세요』

『아니로다。내가 다시 일지못할것은 내가 잘 아는배, 자 가까히들 오너라』

아버지는 이불밖으로 손을 내여 밀엇다。놀랍게도 여윈 손이엇다。갈구리와 같이 크고 굳세든 그 형대는 없어지고 놀랍게 여윈 손은 육즉이 밀대마다 후들후들 떨렷다。형제는 좀더 아버지의 앞으로 닥어 앉엇다。

『아들아。너이들 비 맛할때자를 어떠케 생각하느냐』

『세상에 드문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옵니다』

『너이와 어때냐?』

『그것은 마치 해와 자리를비교할과같이 비교도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니만치 너이도 또한 훌륭한 애들이다。즉 몰지라도 나는 한이 없다。그런데 비류야』

『녜?』

『래자가 오기때문에 너는왕위에 올려할수가 없게 되엇구나』

『아버님。그게 무슨 말씀이오니까? 형이 잇으면 아우는 본시부터 바래지도 않는것이옵니까? 왜 그런말씀을 하세요? 어서 치료나 잘 하셔서—』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가로막엇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내마음이 놓인다。이후에도 형을도와라。형도 사랑하[illegible] 일이 잇으면 숨김업이 말해라。잘 보좌해라。아비의 부탁이다』

『녜。알겟습니다』

대답은 하엿지만 너무도 쓰린 대답이엇다。바야흐로 길을 떠나려는 자기네들에게 내어형을 보좌하라는 말씀은 너무도 쓰렷다。

『녜』

『굴쿨내 외종케 지내라』

『형은 훌륭한 인물이다。그러나 너이들도 형에게 지지 않는 훌륭한 인물이다。내 영광이로다。자 곤할테니 물러가서 자거라』

『네』

대답은 하엿지만 형케는 차마 이러나지못하엿다。위독한아버지를두고 떠나려하매 형제는 너무도 슬프고 가기 싫어서 몸을 이르키지를 못하엿다。

『자。물러가 자거라』

『네……』

그래도 못이러 나는것을 보고 아버지는 눈을 형제에게 향하엿다。

『무슨 할말이라도 잇느냐?』

『네……』

『무슨 말이냐?』

『네……』

아아。아모런 질문에 대하여서도 형제는 『네』의 한마디 대답밖에는 알지를 못하엿다。

아버지의 눈은 드디어 형제의 눈물을 발견하엿다。아버지는 눈을 크게 떳다—

『왜 울우느냐』

『네……』

『응 내가 의독한줄 알고 우는구나。사람이란 한번 낫다가도 죽는것—비록 죽기싫고 보내기 싫드라도 할수없는 일이다。내일 아츰까지는 그래도 죽지 않을터이니 마음놓고 물러가서 쉬고 아츰에 다시 오너라』

『네……』

형제는 할일없이 이러섯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직을 하고 나왓다。

이것만잇스면一年은걸리는洋裁의秘訣이一目瞭然

婦人公論

十月特輯號 十五日發賣 特價六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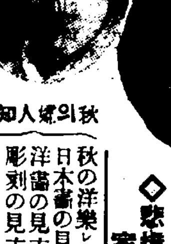
特選實話 貰はれた娘（五篇）
親のものでない娘……[illegible]
母でない母の手記……[illegible]
二十四年目に初めて生母に會つた私……[illegible]
生母よ許せ……[illegible]
地に墮ちたわくらば……[illegible]

日滿兩國女性握手 [illegible] 鄭穎

(鄭穎夫人)

非常時와女性의覺悟……長谷川如是閑
▲逝ける妻照子に……相馬御風
□日本文學講座「七番日記の一茶」……荻原井泉水
◇戀愛に立つ—家を脊負ひて—……[illegible]
秋の洋樂レコード……牛山充
日本畫の見方……伊東深水
洋畫の見方……中村研一
彫刻の見方……朝倉文夫
日本と對國際聯盟……[illegible]
女人憲法十ケ條……賀川豐彦
女一人で出來る新商賣……[illegible]

秋の婦人知識
夫婦間の禮儀……市川源三
新女人國記……虞美人草
內外時評……山川菊榮



天下の人氣を集中せる小說欄
◆男裝の麗人……村松梢風
◆青い寢室……林房雄
◆僞れる未亡人……三宅やす子
◆ダンサー……國枝史郎
◆それを敢てした女……細田民樹
◆お千代傘……吉川英治
◆戰國女風景……國枝史郎
◆かたかたの下駄……水川多有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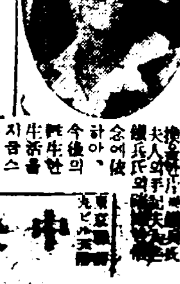
天刑病者の妻の手記

結婚適齡娘の座談會
三人の母を持つた經驗……青野季吉
女給から近衛公爵家に入つたみね子夫人
女中から知事夫人に
△富永に戀を讓つた伊達投手
△騷された大日活爭議の眞相
△勝つて歸つたオリムピック女子選手の日記
▲天勝懺さんげ（自叙傳）
▲父伊井蓉峰の思ひ出……伊井[illegible]
▲勘彌一家の悲しき離散

同志より離れゆく獄中の夫

新避姙法 誰にでも分る 世界的な

▽經濟的なおいしい卵料理廿六種の公開
▽基礎編みの新知識
▽味噌汁講座……本山荻舟
▽家庭料理研究會
▽これからの日常服



別冊二大附錄 淺岡式自在型紙 秋の新流行スタイル・ブック

中央公論社